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지 2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광(星光, Shining Star)이라는 교회 이름을 주시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은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택함이 축복이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모두 택함 받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성경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해주시고 그를 훈련시켜 복의 근원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으면 예정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손위에 현재 없어 놓고 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예정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예정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방책을 예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책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1-3에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허락없이 자기 생각대로 환경을 보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 아내를 동생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애굽왕 바로가 아내로 취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라가 바로와 동침이라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요,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결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폭풍우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 안 할 터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도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며 일단 하란을 떠났습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착했던 곳을 떠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얼마나 난감하고 위험한 일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떠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 장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향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거나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기독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혜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생의 기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향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거나 큰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원하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신을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며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얻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교회에서 거들먹거립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그 학벌로 무식한 사람을 깔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곧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주위에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 장 22-23 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 순종을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왜 돈 버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즉 선교하기 위해 돈 버는 것입니다. 왜 좋은 직장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 너의 능력이 없느냐 네가 능력 주겠다. 돈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나머진 내가 한다.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형통도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도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믿고 순종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메인 메세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택함 받아 이 세상에 23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상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가지시고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시면 교회에 주시는 복을 반드시 그 성도에게 내리 주실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택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한 일을 나누기 바랍니다.
2. 순종으로 인해 축복과 응답 받은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
3. 성광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